영어어문교육 *제24권* 4호 2018년 겨울

대화식 저널쓰기가 대학생들의 쓰기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연구*

신 수 정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hin, Soo-Jeong (2018). Th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dialogue journal writing on their writing skill and affective domai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4), 109-126.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on their writing skill and affective domain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dialogue journal writing had been applied to twenty-six university students' over a 16 week perio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udent journal entries and interviews.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with students' dialogue journal writing and interviews that were conducted with 15 studen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dialogue journal wri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udents' writing skill such as the students' writing fluency enhancement, expansion of vocabulary items, grammar awareness rising. In addition, the dialogue journal writing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udents' affective domains such as writing anxiety, motivation as well as interests of English writing. And the findings suggested that dialogue journal writing could facilitate college students' English writing development when it comes to authentic communicative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the teacher.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dialogue journal writing/feedback/writing skill, 대화식 저널쓰기/피드백/글쓰기 기술]

I. 서론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국제 공영어인 영어로의 의사소통은 국제인, 세계인으로써 우리 삶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인터넷, SNS(Social Media),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구두 언어 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의 실제적 사용능력이 중요성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

* 본 논문은 2018년 침례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고 있다. 이와 수반되는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최근 흐름에서 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영어수업에서 쓰기활동이 미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시간에는 듣기 및 말하기에 치중을 두는 반면에 중,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위한 읽기와 문법중심의 교육으로 영어쓰기의 기회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실태를 분석한 양만섭, 손영귀(2009)에 의하면 영어교사들은 영어쓰기수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30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쓰기영역을 평가하지 않거나 10%미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수월(2012)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영어교육현장에서 실제 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들을 학습자들의 작문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쓰기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제한적인 학습 시간과 입시교육에서의 쓰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쓰기문제의 개선방안의 한 방법으로 대화식 저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화식 저널은 학습자들의 언어적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언어적 측면으로 대화식 저널은 학습자들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Min & Kim, 2005), 학습자들의 어휘능력을 향상시켜 의미있는 상황에서의 영어쓰기를 위한 도구로 역할을 하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밝혀졌다(이재민 & 임현우, 2010; 차경애 & 최승희, 2013; Min & Kim, 2005). Liao와 Wong(2010)는 대화식 저널쓰기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쓰기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대화식 저널의 긍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대화식 저널쓰기의 방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하는 것에 비교하여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대화식 저널쓰기에 관한 연구를 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재 한국 영어교육계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을 대학생들로 삼고 대화식 저널쓰기활동이 그들의 언어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재민과 임현우(2010)와 정영철(2011)의 연구의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여 시작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언어적 영역인 영어쓰기의 유창성과 정확성, 어휘, 문법 및 영어문장구조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가?

2.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은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정의적 영역인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쓰기불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화식 저널쓰기의 활용효과

교사와 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개인적이고 문자적인 대화인 대화식 저널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하는데(김혜리 & 경지숙, 2008, 차경애 & 김홍주, 2011; Danielson, 1988), 이와 같은 대화식 저널쓰기는 학생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가시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Gustein, 1983, Peyton & Reed, 1990). 학생들의 저널에 있어서 교사는 문법이나 형식 같은 부분보다 의미 중심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글쓰기에 있어서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대화식 저널쓰기를 읽고 피드백을 하지만 이에 대해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들이 쓰고 싶은 것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Gustein, 1983; McGrath, 1992; Morini, 1995). 대화식 저널쓰기의 주제들은 학생 스스로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주제들은 다분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글을 작성하게 된다(McGrath, 1992; Staton, 1988). 교사는 학생들이 쓴 저널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 우회적으로 자신의 답변에 반영을 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학생들이 교사의 답변을 읽으면서 스스로 올바른 형태의 쓰기 형식을 내재화할 수도 있다(Gambrel, 1985; Peyton & Reed, 1990; Staton, 1988).

2. 대화식 저널쓰기의 효과 및 선행연구

대화식 저널쓰기는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면과 언어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우선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교사는 성적이나 오류 수정을 하지 않고 학습자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비 격식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표현적인 방식을 하는데 부담이 적도록 유도한다. 대화식 저널쓰기를 통해 학생과 교사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빈번하여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정서적인 장벽을 낮추어 준다(Gustein, 1983). 대화식 저널쓰기에서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의견의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Danielson, 1988; Gustein, 1983; McGrath, 1992). 대화식 저널쓰기가 학습자들의 언어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Hudelson(1994)에 의하면 대화식 저널쓰기가 교사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상

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을 시도하게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화식 저널쓰기는 학습자의 문맥의 유창성 그리고 내용의 구성과 어휘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Liao와 Wong(2010)는 연구결과를 통해 대화식 저널쓰기의 언어적 영역의 장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화식 저널쓰기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이는 새로운 입력 자료로 기능을 하게 된다. 학생은 교사의 답변을 추가적인 읽기 자료를 통해 글쓰기의 모델로 삼기도 하고 어휘나 표현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Gambrell, 1985; Peyton & Reed, 1990; Staton, 1986).

국내에서 대화식 저널쓰기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실행되어왔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그 연구대상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김혜리와 경지숙(2008)은 초등학생들에게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하게 한 후 여러 가지 주도적인 쓰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대화식 저널 저널쓰기 활동을 하게 하였다. 대화식 저널쓰기를 교사와의 문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경험의 수단이 넓어져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단순한 작문활동을 넘어서 사회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차경애와 최승희(2013)은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저널에 정확성 면에서 향상을 보이고, 어휘력이 확장되었으며 의미 있는 문자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쓰기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의적 영역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모두에게 자신감이 상승되었음을 파악되었다.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대화식 영어 저널쓰기 연구를 한 Min과 Kim(2005)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영어 글쓰기능력에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내렸다. Song(1997, 재임용, 이재민, 임현우, 2010)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화식 저널쓰기를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대화식 저널쓰기 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통제집단 학생들과 비교해서 쓰기능력과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두려움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2018년 3월 2일부터 6월 14까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C대학교 영어과 1학년 2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은 17명, 남학생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대상학생들은 영어과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영문강독과 실용영문법을 수강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법지도에 속하는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진정한 의미의

저널 쓰기 지도를 받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6명의 참여자들 중 저널쓰기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3명에 불과했다. 연구대상을 상대로 영어 기능 영역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영어의 4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영역에 읽기는 34.6%, 제일 자신 있는 영역 역시 읽기 38.4%, 그리고 가장 어려운 영역은 쓰기로 53.%이라는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들이 영어쓰기를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대학교 1학기 동안 연구자는 영문강독(영문독해)과 실용영문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어저널쓰기를 과제로 부여하였다. 영문강독에서 배운 어휘와 표현을 영어저널에 활용하여 쓰게 하였으면 실용영문법 시간에 배운 영문법(가정법, 현재진행형, 수동태 등)을 의도적으로 영어저널에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영어저널의 내용은 하루 중 중요하거나 인상 깊었던 일을 중심으로 쓰고, 먼저 제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4개월간 일주에 한 번씩 영어저널을 작성하게 했으므로 학습자들은 각각 10편씩 총 260편의 영어저널을 작성하였다. 학습자들의 대화식 저널의 피드백으로 연구자이자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문법, 어법, 어휘의 지속적인 오류는 비명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주었고 주로 학습자들의 저널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참여자들은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대학생들이 제출한 260편의 영어일기를 내용분석을 하고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후에 심층적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대화식 저널쓰기활동이 그들의 언어적 영역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인터뷰는 30분간씩 진행되었으며 녹음된 인터뷰는 연구 분석을 위하여 전사하였다. 참여자들의 쓰기 평가 결과의 채점을 위해서 O'Malley와 Pierce(1996)의 총체적 평가 채점 기준을 참고하고 또한 박혜숙(2006)의 분석적 평가 채점표를 보고 참여자인 대학생 1학년 학생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평가채점기준을 만들어 학습자들의 대화식 저널을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화식저널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언어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1)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한 학습자들의 문법의 향상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하면서 이지수 참여자의 문법 오류의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영어쓰기의 정확성에 도움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

다. 학습자들은 저널쓰기를 통해 학습한 문법적 용법을 복습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학습한 문법용법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Today I ***go*** to the 한밭수목원 with 주영, 한진, 홍필, 지원, 해웅, 찬용. We ***use*** a subway and get off 정부청사. We ***walk*** street for 15 minute and ***arrive*** it. We ***spread*** a mat that 찬용 brings. We ***sit*** it and ***order*** the chicken. Chicken ***is*** very delicious. We ***eat*** up all afte eat. We ***walk*** 수목원 and ***take*** pictures and ***listen*** to music. This ***is*** very nice time.! after break, 홍필, 한진, 주영 and I ***go*** to the 둔산동. I ***buy*** some clothes and we ***go*** the cafe. I ***drink*** banana juice and chocolate juice. It's very yummy! (이지수/여/중/저널 1)

> I am glad to know that you ***had*** a wonderful time with your new friends at college. Oh, you ***took*** a subway and ***got off*** at 정부청사. It ***didn't take*** much time to get there, did it? And you ***bought*** some new clothes I like to see how you look in those clothes. (교수자 피드백)

이지수의 1회 저널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시제의 문법적 오류에 밑줄을 쳐서 학습자가 틀린 부분을 지각하게 하여 틀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자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범한 시제의 오류를 위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학습자가 쓴 문장을 교수자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교수자의 피드백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문법적 오류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된다. 지수의 저널 1에서는 시제의 문법적 오류 이외에도 고유명사나 친구들의 이름들을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하였다.

> My mom and father ***went*** to the picnic with my two younger sisters and I ***stayed*** alone in the house for two days. I ***was*** so bored and hungry. I ***wanted*** to drink melon juice!! To drink melon juice, I ***took*** a bus for 1 hour and ***went*** to Lotte department store. Today as well, I ***went*** to Lotte department store. I ***was*** so happy because soon I ***could*** drink Melon juice!! Melon juice ***was*** sold out. I ***was*** very sad and I ***wondered*** around aimlessly. Surprisingly another store is very noticeable. (이지수/여/중/5회저널)

이지수의 1회 저널에서 지수가 범하고 있는 시제의 오류의 횟수가 거의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지수의 5회 저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지수는 교수자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자신이 범한 시제오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교수자는 간단히 시제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이지수의 저널 5에 나타난 시제의 올바른 사용은 지수가 시제부분의 문법부분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지수는 1회 저널에서 보이진 않았던 수동태의 문장인 'Melon juice was sold out.'의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문법구조의 발전이 엿보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회 저널에 비교하여 5회 저널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어 문장의 표현의 풍부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I had been trying to have dinner with my parent but If my parent had had a time, I wouldn't have had a time and vice versa. We were too ***disappoint***. We wanted to eat together. So we promised that we must have dinner time together on Tuesday. Since we had an appointment, I told them it repeatedly and day after day "Dad, didn't you forget our appointment? Mom, please don't forget our appointment" On Tuesday, I was so happy since I had woke up because today I met my ***parent***! ...중략... After class, I called my Dad, but my Dad said "You might want for 50 minutes because we ate together ***two pastor***. So I went to go together them but they didn't come..중략 (이지수/여/중/9회 저널)

> Oh, I can tell that ***you were too disappointed***. You must be very excited thinking that you could meet ***your parents.*** This journal entry is much better than the other journal entries. Nice going! (교수자 피드백)

이지수는 9회 저널에서 다양한 용법의 시제를 사용하였으며 1회와 9회 저널에 비해 문장의 구조가 단문에서 중문과 복문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지수의 수동태의 잘못된 형태를 교수자는 피드백에서 이지수가 사용한 문장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비명시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복수명사 뒤에 -s를 붙이는 오류를 범하여 역시 비명시적으로 밑줄을 치며 지적하였다. 이지수의 9회 저널에서는 so나 since 같은 인과관계 접속사를 이용하여 내용을 부언 설명하면서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통사의 구조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 민기(남/중): 제가 일기를 다 현재형으로 쓴 것을 교수님께서 과거시제로 통일하라고 적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제를 주의해서 일기 썼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영어일기를 쓰는 것은 문법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영어일기를 쓰다 보면 문법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그러면 문법적인 부분을 다시 찾아서 공부하면 영어문법이 향상되는 거 같아요.
>
> 예찬(남/하): 일 학기 때 수업시간에 배운 문법이 머릿속에 남지 않았는데 영어일기를 쓰면서 수업시간 때 마다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문법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개념이 확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일기는 영문법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컸던 거 같아요.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문법용법을 저널에 의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된 문법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가졌다. 많은 학습자들은 이제까지 영어문법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워왔지만 문법의 개념화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문법사항을 생각해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문법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고 있었다고1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영어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오류 수정을 교사의 비명시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들이 범한 오류를 지각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운 다는 Min과 Kim(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주로 저널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 것으로 문자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교수자의 피드백을 읽고 학습자들의 문법오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고 설명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 교수자와 구두로도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구두 상호작용은 문자 상호작용에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한 학습자들의 문장의 표현(내용전개의 심화)의 풍부함 증대

참여자들은 현실감 있는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읽고 반응함으로써 그들의 저널에서 내용의 전개를 심화하고 문장의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 Today is 지현's birthday. So 진현 served dinner 선민 and me in Sega & Cook. After we ate dinner, we went to Olive Young. I bought lipstick ***to 진현***, and 선민 bought cream ***to 진현.*** We spent ***many time*** in OliveYoung, we read staff members countenance. Also, we went to shopping. I bought a black flower pattern mini dress, and 진현 bought a wine T-shirt. We were very tired, but we spent time happily. (김은정/중/여/저널1)

> It was nice of you to celebrate 진현 ‘s birthday. It is always good to have friends who appreciate us, isn't it? Oh, you bought ***a lipstick for 진현***. What color of that lipstick ***you bought for 진현*** is? I also ***spent much time*** in cosmetic stores to check if there are new products. (교수자 피드백)

교수자는 김은정의 저널내용에 동의와 공감을 하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피드백을 제공해주면서 학습자의 저널내용에 교수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써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와의 유대감과 학습자들의 저널에 대한 교수자의 흥미의 표현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쓰려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김은정은 1회 저널에서 몇 가지 문법적 오류를 보였으며 교사는 학습자가 범한 오류표현이나 어법에 밑줄을 친 다음 답변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법을 수정하여 주었다.

> Yesterday, my mother told me, "the weather is getting cold. You'd better take your padding and a coat. If you don't, you might catch a cold." but I got up late, I had to get ready to go to university in a hurry. So I couldn't' take them. Although the sun was shining, it wasn't warm. After class, when I went to have a dinner with my friends, it was windy and gets cold. Maybe I could caught a cold. I called my mom, and I request her to send some coats and padding by parcel service. I got a scolding from my mom for almost five minutes. I expect my package will be arrived tomorrow or the day after tomorrow. ***I wish it will*** arrive quickly. (김은정/여/중/6회 저널)

> Your journal entry is much better than the other entries. I can see your efforts to try to use grammar points that you learned in class which is a good sign. Mom is always right, There is nothing wrong to listen what mom says to us. You learned a good lesson. (교수자 피드백)

김은정의 1회 저널과 6회 저널을 비교해 보면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 ”을 사용한 직접화법을 사용하면서 문장의 표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If의 조건을 사용하여 가정법의 형태의 구문을 문장내에 써서 다양한 문장의 표현을 쓰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한 영어어휘의 확장

> Today is raining. So I'm very blues. My friend 동욱 was too. We

wanted to see a movie. We went to the movie. We rode subway to go to No-eun. It took only 3 minutes from 지족 to 노은. We went to the No-eun CGV. We watched a movie. ***Movies names*** is Luck key. It was very ***fun*** and romantic. At first, I don't understood meaning of the name of the movie. But after movie ended, I understood the titles meaning. (권성근/남/하/2회 저널)

Oh, the name of the movie you saw was Luck Key. I saw the preview of that movie on TV, but haven't seen it. Why don't you write the story of that movie in your next journal entry? I like the kinds of movies which are ***funny*** and romantic.

권성근는 처음에는 저널쓰기를 매우 어려워했고 1회 저널에서는 문장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전달하고 자 하는 바를 주어와 동사를 명확한 제시 없이 모호하게 작성하였다. 교수자는 권성근의 1회 저널을 읽고 피드백 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시간에 교수자는 권성근에게 영어저널을 작성할 때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구조와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여 처음에는 문장을 짧게 작성하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제안과 피드백은 권성근의 2회 저널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성근은 인터뷰에서 교수자가 자신에게 짧은 면담에서 조언한 기본적인 문장구조와 문장을 짧게 하고 주어와 동사를 넣어 작성하려는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I ***hav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So I went to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military duty. First choose the number. I was number 64. I sat down 64 seat and heard some information. The first picture of me. The second personality test and a simple test and the third I made a card. The card called names 나라사랑카드. The three part after began a physical examination. ***Urine*** examination, blood test, ***blood pressure*** checked. My urine color is very thickest. I am so ashamed. In addition, the examinations of chest X-ray. Because of my leg surgery, I was diagnosed with a 5th grade. The 5th ***exemption*** of a soldiers. Yes, I'm free of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권성근/남/하/10회 저널)

Are you pleased that you don't have to go to the military service? And since you are going to have a winter break soon, I suggest you that you study English grammar along with readings materials you are interested in. Reading materials don't have to be long. Choose

something that you like to read and are able to concentrate on. (교수자 피드백)

권성근의 10회 저널은 2회 저널과 비교해서 문법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널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적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어휘의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는 새로운 어휘들이 10회의 저널에서 보인다. 예를 들어 administration, urine, blood pressure, mandatory, exemption 같은 어휘들을 사용했다. 권성근의 10회 저널에서는 군대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쓰면서 간단한 의학적 용어와 군대가기 전의 절차와 관련하여 영어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확장되었다. 이는 권성근이 군대라는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저널을 쓸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며 글을 썼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권성근이 1회부터 9회까지 부언설명을 하기 위해 also 또는 and 라는 접속사 사용하였는데 10회 저널에서는 부언설명을 위해 새로운 접속사인 in addition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부언설명에 대한 다양한 접속사를 활용의 시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대화식 저널쓰기가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Chuseok was coming. So my family went to Cheonan. We went to see grandmom. She seemed to be healthy. We didn't make a dish because my grandmom and aunt already did. They are a good hand at cooking. After we ate dinner, ***My*** mom, sister, aunt and ***me*** did grocery shopping. After we did, my aunt taught cooking to my sister. We watched TV and talked. We all went to bed. (한슬기/여/중/3회 저널)

I can tell that you had a meaningful time with your family during Chuseok which is Korean Thanksgiving day. What kind of dish did your aunt teach your sister to cook? It is blessing to have family to spend time with during the holidays. I suggest that you write a journal a little longer with more details. (교수자 피드백)

한슬기의 3회 저널을 보면 많은 문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수자는 피드백을 통해 다음 저널은 좀 더 상세하고 길게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슬기는 문법의 정확성에 신경을 너무 쓰는 바람에 저널의 양을 많이 쓸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교수자는 오류를 범하는 것에 초점을 너무 두지 말고 일기의 내용을 본인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데 집중하도록 지도하였다.

I'd elected a figu player. I'm really not good at figu. In the first game, I was offensive team. At that time, ***the butterflies were swirling in my stomach***. In the middle of the game, the ball was flying into my face and I couldn't avoid it. After this happened, I ***relieved my tension due to tha***t and I had ***aggressiveness***. My department had lost a game. In the second game, I was a defense and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because of a defense. We had won the second game! But at the end, we had lost! I thought we would win. (한슬기/여/중/8회 저널)

You were ***in an offensive team.*** I am sorry that your team lost a game. It is good that You used a good expression such as "the butterflies were swirling in my stomach". I can see that you have been trying to use new words and expressions which is a good sign of improvement of your writing skill. (교수자 피드백)

한슬기의 8회 저널과 3회 저널을 비교해 보면 한슬기는 문법적인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쓰고 있다. 이런 노력은 한슬기의 유창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행착오와 문법의 애매모함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한슬기는 새로운 문장, 어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널내용의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민기(남중): 영어저널을 쓰다 보면 쓰고 싶은 어휘가 영어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찾아보며 공부하면 전체적인 영어실력에 영어저널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널쓰기를 안 할 때는 항상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만 쓰다가 일기를 쓰면서 남들이 안 쓰는 단어도 쓰고 배우며 어휘가 향상된 거 같아요.

슬기(여/중): 영어저널을 쓰다 보면 제가 쓰고 싶은 단어들을 찾고 일기에 써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저널 쓰기가 어휘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요. 저는 필리핀에서 1달 어학 연수하면서 매일 영어저널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영어쓰기가 많이 향상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제물로 영어저널을 쓸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영어저널을 쓰면서 단어나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문들이 공부하면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부가 된 거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어저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들의 인터뷰 결과와 권성근과 한슬기의 저널예시를 살펴보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을 가져왔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화식 저널쓰기가 학습자들의 어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Lee(2011)의 연구결과의 주장을 지지한다. 참여자들은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하면서 영어로 쓰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하며 모르는 어휘나 표현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수업시간에 배운 어휘와 표현을 이용하여 저널을 쓰면서 어휘학습을 내재화함으로써 어휘향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어휘와 표현의 사용은 참여자들의 영어쓰기 유창성에 기여를 하는 기여하고 있다. 차경애와 최승희(2013)는 대화식 저널쓰기에서 연구대상인 중학생들이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문을 만들어보는 작문 연습의 장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으면서 대화 저널쓰기가 상위 학생들의 어휘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기계적인 암기식의 어휘와 표현 익히기에 익숙한 참여자들에게 대화식 저널쓰기를 통해 유의미하고 진정성 있는 학습 환경에서 어휘와 표현을 익히기 때문에 대화식 저널쓰기가 어휘와 표현 익히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2. 영어일기가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1) 영어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감소

참여자들은 대화식 저널 쓰기를 하면서 영어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비격식적인 저널쓰기는 학습자들의 쓰기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Byrne(1998)이 주장하듯 쓰기가 학습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학습을 더 정진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 민기(남/중): 저는 한글말로도 일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일기를 쓰려니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영어로 일기를 써 가면서 글을 쓰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 같아요.

> 다애(여/상): 영어로 글을 써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이번에는 문법적인 것을 매 일기에 써야 하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기를 쓸 때 교수님께 수다를 떤다는 식으로 써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만약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 더 주저했을 거 같아요.

저널쓰기 활동을 처음 해 본 참여자들은 저널을 처음 쓸 때는 부담이 상당히 되었으나 저널쓰기를 계속함에 따라 대화식 저널 쓰는 것이 부담이 적고 흥미

있게 영어쓰기를 시작하기에 유익한 활동이라고 보고하였다.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어렵게만 느끼는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덜어주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어려운 에세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대화를 주고받는 다는 심정으로 저널쓰기를 했기 때문에 격식적인 다른 장르의 쓰기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부담감이 덜 했고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영어쓰기에 대한 두려움에 감소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표현하였다. 이는 대화식 저널쓰기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는 Liao와 Wong(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2)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향상 및 학습동기 증진

교수자는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의 저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나, 칭찬으로 학습자들의 발전을 교수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의 저널쓰기에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파악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로 저널을 쓰면서 자신의 실력을 재점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쓰기에 관한 학습동기를 갖게 되었다.

> 홍재(남/중): 영어일기를 쓰다 보면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구나 깨닫게 돼서 재미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구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 글 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질문도 해주시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교수님께서 제 저널이 향상된다고 써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 필리핀 공부하면서 영어일기를 쓸 때는 그만 둔 이유가 누가 제 일기를 읽어보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덜되더라고요.

> 지수(여/상): 영어일기를 쓰면서 영어쓰기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또 제가 영어일기를 쓰면서 어휘가 많이 부족하고 영문법도 재정비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독해를 익숙하고 그래도 자신은 있는데 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써야 할지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1학기 써봐서 그런지 영어쓰기가 익숙해졌어요.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붙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영어일기를 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들에게 처음으로 영어로 저널을 써봤기 때문에 생소한 경험이고 두려운 경험이었지만 영어로 자신의 표현을 직접 써나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기한 경험이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씀으로써 저널쓰기에 대해 흥미를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영어쓰기를 보고 학습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쓰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널은 하루의 경험과 느낌을 써 내려가며 자동적으로 반복학습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강한 학습동기를 갖는다.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경험했던 저널쓰기를 계속 쓰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Reid(1997)가 자신감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저널쓰기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3) 교수자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

참여자들은 교수자와의 지속적인 문자대화를 통해 교수자와 유대감을 형성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보고하였다. 교수자는 참여자들의 저널에서 문법의 오류보다는 그들의 저널내용에 초점을 두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피드백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공감이나 동의를 하는 등 마치 이 메일로 펜팔을 하는 듯 한 감정이 들도록 피드백을 하였다.

> 진아(여/하): 교수님께서 쓰신 피드백이 영어라서 영어를 읽는다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교수님과 더 개인적으로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제 저널에 관심을 주신다고 느꼈거든요.

> 진아(여/상): 저널을 쓸 때 문법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교수님과 수다를 떤다는 느낌으로 저널을 썼어요. 에세이를 써야 했다면 편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쓰시니 피드백이 영어라서 영어를 읽는다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교수님과 더 개인적으로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게 된다고 느끼면서 저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으니까요

대화식 저널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독자로써 학생들의 글을 호기심 있게 읽는 역할을 하였다. 오류만 빨간 펜으로 수정하는 다른 작문수업과는 달리 대화식 저널에서는 교수자는 최대한 학습자의 내용을 읽고 다양하게 반응하고 개인적인 관심과 제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식 저널쓰기를 통해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증가되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학생과 교사 사이의 정서적인 장벽을 낮추어 준다는 Gustein(1983)의 연구결과를 재 검증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대학생들의 언어적 영역과 정

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언어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일주일에 한번씩 4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작성한 대화식 저널내용을 분석하였고 정의적 영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언어적 영역측면에서는 문법의 향상, 어휘신장, 문장표현 하는 방식 향상을 통해 영어의 유창성 및 정확성에서 향상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정의적 영역에 대한 대화식 저널쓰기의 영향을 파악해 보았는데 정의적 영역에서는 대화식 영어저널을 계속 작성함에 따라 영어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였고 영어쓰기에 대한 자신감 및 흥미 도를 보여 영어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다. 상위권과 중위권 학습자들은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변화를 보였으면 하위권 학습자들은 저널의 분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4개월간 대학교 1학기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기쓰기를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영어 일기 쓰기의 보다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현장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에게 처음 영어 저널 쓰기 과제를 내줬을 때 어려워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영어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쓰기과정에서 문법적 오류를 범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문법적 오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현장교사들은 현장교수 상황에서 영작문지도를 할 때 문법적인 오류는 쓰기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저널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피드백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칭찬과 격려, 그리고 내용에 대한 흥미를 진정성을 가지고 보인다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학습자가 좀 더 자유롭게 저널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백혜림과 이성원(2013)이 지적하듯 다양한 영어쓰기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여 정확한 문법지식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학습자들은 올바른 형태의 입력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교사들은 대학생들의 저널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방안으로 저자는 저널쓰기지도에 초, 중 과정에서 쓰기 전략훈련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4개월이라는 대학교 1학기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화식 저널을 쓰게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과예측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대상이 특정한 대학교 영어과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김수월. (2011). *협동적 쓰기 활동이 중학생의 영어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김혜리, 경지숙. (2008). 대화식 저널 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초등영어 문자교육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0*(3), 170-196.

박혜숙. (2006). *영어쓰기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백혜림, 이성원. (2003). 대화식 저널쓰기가 초등학생의 영어 쓰기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 연구, 18*(3), 51-75.

양만섭, 손영귀. (2009). 중등학교 영어 쓰기교육의 실태분석. *영어교육연구, 38*(5), 106-135.

이재민, 임현우. (2010). 대화식 저널 쓰기 활동이 한국인 중학생들의 영어쓰기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16*(3), 291-315.

정영철. (2011). 대학생들의 대화식 저널쓰기의 이점과 대화의 양상. *현대영미어문학, 29*(3), 41-65.

차경애, 김홍주. (2011). 인터넷 기반 대화식 저널쓰기에서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언어 기능 유형 분석. *외국어교육연구논집, 25*(1), 187-210.

차경애, 최승희. (2013). 대화식 저널쓰기를 통한 중학생의 쓰기 능력 발달 사례 연구. *현대영어교육, 14*(1), 243-65.

Byrne, D. (1998). *Teaching writing skills.* London: Longman.

Danielson, K. E. (1988). *Dialogue journals: Writing as conversation.* Bloomington, IN: The Phi Delta Kappa Educational Roundation.

Gambrel, L. B. (1985). Dialogue journals: Reading-writing interaction. *The Reading Teacher, 38*. 512-515.

Gustein, S. (1983, March). *Writing a dialogue journa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ESOL, Toronto.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56 155).

Hudelson, S. (1994). Literacy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children. In F. Genesee(Ed.), *Educating second language children* (pp. 129-15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ao, M. T., & Wong. C. T. (2010). Effects of dialogue journals on L2 Students' writing fluency, reflections, anxiety, and motivation. Reflections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9*(2), 9-170.

McGrath, M. (1992). *Writing before speaking: How the dialogue journal stimulates conversation.* Unpublished MA Thesis. Biola University, Californi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7 830).

Min, C. K., & Kim, J. (2005). The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on Korean high school EFL writing education, *English Teaching, 60*(4), 71-86.

Morini, E. (1995). *Student-teacher dialogue journals as a tool for developing interaction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ologna, Italy.

Peyton, J. K., & Reed. L. (1990). *Dialogue journal writing with nonnative English speakers: A handbook for teachers.* Alexandria, VA: TESOL.

Reid, L. (1997). Exploring the ways that dialogue journaling affects how and why students write: An action research project. *Teaching and Change, 5*, 197-236.

Song, M. J. (1997). *The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on overall writing quality, reading comprehension and writing apprehension of EFL college freshma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0 766). 1997. 284 276.

Staton, J. (1988). *Classroom interaction as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Arts, 65*(2), 198-201.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Higher

신수정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
34098 대전시 유성구 북유성대로190(하기동)
Email: sjs@kbtus.ac.kr

Received in October 16th, 2018
Reviewed in November 27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8